

블랙리스트 한파에도... 풍성한 무대 뜨거운 호응

2016년 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2 공연

‘율리시스의 귀환’ ‘홀스토포르’... 문화전당 굿직한 연극 무대 올려
 금남로 달근 ‘프린지페스티벌’ 등 도심 문화축제 시민 발길 줄이어
 40주년 광주시향·발레단·합창단 도쿄·광저우 등 해외 공연 눈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무대에 올린 윌리엄 칸트리지의 ‘율리시스의 귀환’

올해 공연계는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이 관객을 만났으며 창단 40주년을 맞은 광주시향, 발레단, 합창단 등도 해외 공연 등을 진행하며 활발히 움직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 속에서도 예술가들은 의연히 대처하며 작품을 생산해내고 문화예술로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들도 이어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이 진행한 다양한 공연이 눈길을 끌었다. 올 상연작 중에는 윌리엄 칸트리지의 ‘율리시스의 귀환’이 돋보였다. 몬테베르디의 바로크 오페라를 재해석한 이번 작품은 목각인형을 통한 섬세한 표현과 칸트리지가 직접 디자인한 목탄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독특한 미장센을 연출했다.

또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연극 ‘벽-이방인 이피게네이아’, 연극 배우 유인촌을 비롯한 서울 배우들과 오디션을 거친 지역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간 음악극 ‘홀스토포르’도 눈길을 끌었다. 대중과 눈높이를 맞춘 ‘ACC 브런치 콘서트’에는 김성녀, 김동규, 손현주, 금남새 등이 참여해 공연과 토크를 이어갔다.

올해는 7개 광주시립예술단체 중 교향악단, 합창단, 발레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 없이 40주년 행사를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시민의 날을 맞아 오디션을 통과한 시민합창단과 베토벤 ‘합창’을 공연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또 일본 도쿄심포니홀에서 4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지난 11월 1일부터 마에스트로 김홍재 지휘자가 광주시향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내년 활동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술감독과 일부 단원들간의 불협화음

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발레단의 작품 중에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 제작한 ‘봄의 제전 G’가 돋보였다. ‘봄의 제전 G’는 간결한 무대와 잘 짜여진 스토리, 무용수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호평을 받았으며 광저우 공연도 진행했다. 또 지난해 초연했던 ‘불안한 축’은 올해 광주에서 열린 ‘광저우-광주 예술제’에서 다시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권기 지휘자가 이끄는 합창단은 대중적인 공연과 학구적인 프로그램을 번갈아 무대에 올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지역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눈길을 끌었다. 광주사직공원에서 펼쳐진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한 ‘ACC 월드뮤지컬페스티벌’ 등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레코드 페어’도 함께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난장 사운드페스티벌’, 지리산 자락에서 열린 ‘구례 자연드림 페스티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한 ‘ACC 월드뮤지컬페스티벌’ 등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0개월간 금남로 도심을 문화 향기로 뒤

덮은 ‘프린지 페스티벌’도 올해 눈에 띄는 행사였다. 매일 둘째주, 넷째주 5·18문화광장과 금남로 차있는 거리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 체험 행사 등을 즐겼다.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한 양림동 일원은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오웬기념각, 우월순 선교사 사택, 유진벨 선교 기념관, 이장우 가옥, 팽관마을, 양림동 커뮤니티 센터 등 양림동 구석구석엔 문화의 향기가 흠뻑 퍼졌다. 한희원미술관에서는 무지크 바움 콘서트가 열리는 등 미술관 음악회도 인기를 모았으며 ‘1930 양림살롱’ 프로그램에서는 양림동 일원의 다양한 카페가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첫 선을 보인 ‘풍류남도 나들이’는 담양 소재 등 가사문학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공연장과 체험현장으로 변신했다. 특히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씨와 무용인 조가영, 피아니스트 이상숙씨 등이 함께한 ‘소쇄원의 소리 풍경’ 공연은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형태의 공연으로 인상적이었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한 ‘풍류남도 나들이’ 행사 중 ‘소쇄원의 소리 풍경’

다. 제25회 전국무용제에서 뿌앙드 발레단의 ‘프리뷰’가 대통령상을 차지하는 남보도 전했다. 광주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9번째다. 노윤정씨가 안무상, 구윤지씨가 연기상, 유승룡씨가 무대예술상을 휩쓸며 4관왕을 기록했다.

광주 ‘오월연극’의 산증인 극단 토박이가 동명동으로 극장을 옮기고 ‘모란꽃’을 무대에 올리며 또 다른 출발을 시작했다. 특히 토박이를 창단하고, 오월연극의 토대를 닦은 고(故) 박효선선생의 전집(3권)을 발간한 것은 의미있는 행보였다. 5·18 부상자 출신인 이지현씨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연극 ‘애꾸눈 광대’도 100회를 넘기며 눈길을 끌었고, 데뷔 30년을 맞은 가수 김원중의 콘서트를 시민들이 함께 꾸민 건 많은 화제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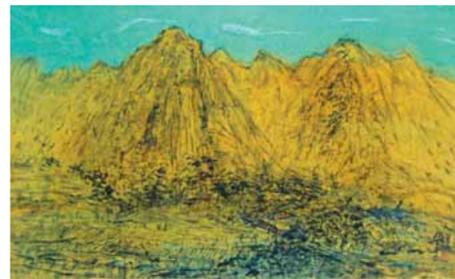
그밖에 지금까지 지역에서 제작된 오페라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광주시오페라단의 ‘라 보엠’, 유·스퀘어문화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최현호, 김영주, 이한나, 문형욱, 주민혁, 공병우, 이미경씨 등 클래식 연주자 릴레이 콘서트도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의 주인이 되는 행사도 많아졌다. 올해 두번째 열린 시민연극제 행사에는 극단 ‘숲’ 등 마을극단 8개 팀이 참여했으며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시민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이 참여했다.

무려 9000여명이 넘는 예술인들이 이들을 올린 ‘블랙리스트’ 파문은 충격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예술계에 일어난 정치검열 의혹에 연극으로 맞서고자 서울 연우소극장에서 열린 ‘권리장전 2016 겸영각하’는 화제의 무대였다. 광주의 임인자씨 등 21개 극단이 제작한 연극 22편이 공연됐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 ‘G&J 광주전남갤러리’ 첫 기획전

31일까지...전남 작가 24명 참여 작품 30여점 선봬



▶조병연 작 ‘월출산에서’

지난 10월 서울 인사동에서 문을 연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 첫 기획전 이 열렸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31일까지 남도 예술은행 기획전 ‘전남내담’을 개최한다. ‘전남내담’은 ‘전남의 작가들이 힘차게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강금복, 강시원, 김수정, 오창록, 조병연, 조광섭 등 전남 거주 작가 24명이 참여한다. 남농 허건, 미산 허형, 의재 허백련 등의 전통회화 작품부터 현대 서양화까지 전남 정서를 담은 작품 총 30점을 선보인다.

조병연 작가가 출품한 ‘월출산에서’는 광대하게 펼쳐진 월출산 자락 밑으로

한가로이 농사 짓는 사람을 등장하며 전라도 정서가 느껴진다.

김수정 작가는 푸른 빛이 돋보이는 회화 ‘연꽃무늬 주전자’를 통해 지역 도자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한편 지난 10월 개관한 G&J 광주전남갤러리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역작가의 서울 진출을 돕기 위해 인사동 인사마루 본관 3층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시 공간이다. 전남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남도예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도 윤림산방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펼쳐지는 토요일경매, 소장 작품 임대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문의 02-2223-2545. /김용희기자 kimyh@

‘한국의 서원’ ‘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

‘한국의 서원’과 ‘서남해안 갯벌’이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18년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할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한국의 서원’, 세계자연유산 후보로 ‘서남해안 갯벌’을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한국의 서원’과 ‘서남해안 갯벌’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등재 여부는 2019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의 서원’은 장성 필암서원(사진)을 비롯한 전국 9개 서원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문가 패널 심사에서 ‘반려’ 판정이 나와 이번이 재도전이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두번째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노리는 ‘서남해안 갯벌’은 충남·전북·전남을 포함한다. 서전 유부도 갯벌 30km, 고창 45km, 신안 다도해 450km, 보성·순천만 65km 면적이다. 모두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이며, 고창 갯벌과 신안 다도해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세계조각·장식박물관 ☎(062)222-0072 (예술거리 서문입구)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재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재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협회 육성/골프꿈나무 지원

화순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체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영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신,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